

이랜드몰이 15일까지 5월 가정의 달맞이 특가 퍼레이드 '반값워크'(사진)를 진행한다. 매일 오전 10시 선착순으로 행사 상품을 50% 할인 판매한다. 또 매일 20개 상품을 특가로 선보이는 '릴레이 극한특가', 오후 9시, 10시, 11시에 각각 60분 간 실시하는 '심야 타임세일' 등으로 구성했다. 정정욱 기자



## 이슈 | 국토부, 집값 안정 위해 주택 전매제한 강화

# 수도권·광역시 분양권 입주 때까지 못 판다

분양권 전매 목적 청약투기 차단 주택법 시행령 개정 8월까지 완료 "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 늘릴 것"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 대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시(입주시점)까지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

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며,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

제한 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청약하는 투기수요가 급증하면서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과열현상이 빚어지자, 정부가 청약시장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구체적으로 수도권경비계획법 시행령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도권경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은 과밀억

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뉜다. 전매행위 제한 기간 강화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만 적용된다. 자연보전권역인 인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광주시 등은 기존대로 6개월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점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정욱 기자 sadzoo@donga.com

## 한국타이어, '벤투스 S1 에보3 SUV' 출시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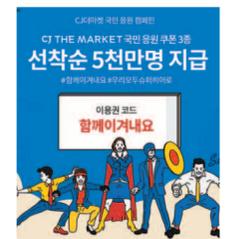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티스테이션이 초고성능 SUV용 타이어 '벤투스 S1 에보3 SUV'(사진)의 국내 출시를 기념해 구매 고객 중 50명을 추첨해 10만 원 상당의 'BMW 드라이빙 센터 바우처'를 증정한다.

이벤트 기간은 31일까지이며 티스테이션닷컴을 통해 '벤투스 S1 에보3 SUV'를 4개 구매하고, 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개인 SNS 계정에 후기를 작성한 뒤 티스테이션닷컴에 URL 주소를 남기면 응모가 완료된다.

증정 바우처로는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의 주행 체험 프로그램 '온로드'나 트레이닝 프로그램 '스타터팩' 중 하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원성열 기자

## CJ더마켓, '함께 이겨내요' 캠페인 펼쳐



CJ제일제당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식품전문물 'CJ더마켓'을 통해 '함께 이겨내요' 캠페인(사진)을 진행한다.

'CJ더마켓' 국민 응원 쿠폰 페이지에서 '함께 이겨내요'라는 문구를 입력하면 선착순 5000만 명에게 쿠폰 3종을 증정한다. 쿠폰을 활용해 '햇반', '비비고' 등 CJ제일제당 대표 브랜드는 물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리더업' 등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국민 응원 기획전'도 진행한다.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식문화 확산에 초점을 맞춰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할인 판매한다. '국민 응원 릴레이 이벤트'도 준비했다. 개인 SNS에 주변의 슈퍼 히어로를 소개하는 소셜 마케팅 캠페인이다. 해당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CJ더마켓 기프트카드 1만 원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원성열 기자

## 현대·기아차, 비대면 IT 개발 플랫폼 구축... '스마트 상생' 시동

IT 개발 전면 비대면 환경으로 전환 협력사 직원, 자택 등에서 개발 업무

현대·기아자동차가 '비대면 IT 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 IT 협력사와의 '스마트 상생'에 나섰다.

현대·기아차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과 함께 협력사와의 동반자적 상생 관계를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등 IT 개발 방식을 전면 비대면 개발 환경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오터모터와 공동 구축한 비대면 IT 개발 플랫폼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와 프로그램 개발 툴을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방식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IT 개발 업무는 관리 편의성과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등을 고려해 발주사가 지정한 장소에 IT 협력사 직원들이 상주하며 협업을 진행해 왔다.

현재 현대·기아차는 의왕, 소하리 등 6곳에 IT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IT개발센터

내에 100여 개 협력업체 1000여 명 인원이 상주하여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때문에 IT 협력사는 익숙하지 않은 근무 환경, 교통 불편, 기존 개발물의 재사용 불가 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해 왔고 일부 개발사는 프로젝트 입찰에 소극적인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비대면 IT 개발 플랫폼 구축을 통해 협력사 직원이나 소속 회사 등이 원하는 장소에서 PC로 IT 개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면, 개발 효율성과 업무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기아차는 우선 의왕 IT개발센터의 협력사 인력을 비대면 개발 체제로 전환하고 연내 소하리, 양재 등 IT개발센터의 운영을 비대면으로 지속 확대 할 계획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비대면 IT 개발 플랫폼 구축을 통해 상호 신뢰 기반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IT 개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력사 직원들의 물리적, 심리적 부담감을 경감해 더 좋은 품질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개선으로 보다 많은 IT 협력사와 상생 경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 신세계조선폰텔, 새 5성급 호텔 '그랜드 조선' 발표

8월 부산·12월 제주 중문에 오픈 가족객객 겨냥...조직원래도 단행

신세계조선폰텔이 새로운 5성급 호텔 브랜드 '그랜드 조선(Grand Josun)'을 발표했다.

올해 부산과 제주에 각각 '그랜드 조선 부산(사진)'과 '그랜드 조선 제주'로 문을 여는 그랜드 조선은 신세계조선폰텔이 글로벌 시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론칭한 브랜드다.

그랜드 조선은 '즐거움의 여정'이란 브랜드 슬로건을 담은 5성급 어퍼 업스케일(Upper Upscale) 호텔을 추구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에 8월 개장 예정인 '그랜드 조선 부산'은 기존 노보텔 엠베서더 부산을 인수해 리모델링을 거쳐 330실 규모로 문을 연다. 이어 12월 제주 중문단지 '그랜드 조선 제주'가 오픈할 예정이다. '그랜드 조선 제주'는 컨싱턴 호텔 제주를 리모델링하고 스위트 객실 50실을 신축해 271실 규모로 운영한다. 두 호텔 모두 패밀리 고객



객을 위해 키즈 전용 플로어, 특화된 테마의 키즈룸, 패밀리형 토탈입 등 키즈 테마 콘텐트를 강화했다.

한편, 신세계조선폰텔은 '그랜드 조선'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오픈을 위해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신규호텔본부를 신설하고 개별 사업장 내 기능별로 분산됐던 조직을 본사 조직으로 모아 통합 운영을 한다.

한재양 신세계조선폰텔 대표이사는 "조선호텔의 정통성에 대해 탐구하고 업그레이드해 새롭게 선보이는 공간이자 고객에게 가치있는 플랫폼으로서 성공적인 브랜드 론칭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4분의 1 크기, 1인용 수박 사세요" 홍보를 위해 4분의 1 수박을 선보였다. 주요 산지에서 수확한 수박을 100% 당도선별해 HACCP(해썹) 인증 작업장에서 4분의 1 크기로 자른 후 밀봉 포장했다.

홍플러스가 1인 가구를 겨냥한 '4분의 1 수박'을 선보였다. 주요 산지에서 수확한 수박을 100% 당도선별해 HACCP(해썹) 인증 작업장에서 4분의 1 크기로 자른 후 밀봉 포장했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 홍플러스

## SPC삼립, '삼립잇츠' 슬라이스 시리즈 2종 출시



SPC삼립의 간편식 브랜드 '삼립잇츠'가 '슬라이스 시리즈' 2종

(사진)을 출시했다. '삼립잇츠 슬라이스 시리즈'는 집에서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얇게 저민 형태의 육가공 제품이다. '순살학센 슬라이스'는 돼지 앞다리 살을 48시간 저온 숙성하고 스톱킹 처리를 더한 정통 독일식 학센이며 '매일 아침 맛있는 슬라이스 햄'은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한 햄으로 샌드위치나 토스트 등에 활용하기 좋다.

SPC삼립 마케팅 관계자는 "삼립잇츠 슬라이스 제품은 흡륙, 흡수를 즐기는 소비자들에 집에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삼립잇츠를 통해 다양한 카테고리의 간편식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 노스페이스, 친환경 '클래식 올스니커즈' 선포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가 천연 울 소재를 적용한 친환경 신발을 출시했다. 대표 제품인 '클래식 올스니커즈(사진)'는 안창은 물론 제품 감까지 생분해되는 천연 울 소재를 적용한 '착한 신발'이다. 통기성과 항균성이 뛰어난 뿐만 아니라, 쿠셔닝도 월등해 장시간 착용해도 발의 피곤함이 적다.

군더더기 없고 날렵한 디자인 덕분에 일상, 출퇴근 및 여행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서 사계절 내내 폭넓게 활용 가능하다. 최근에는 친환경 신발 '올버즈(ALLBIRDS)'와 가성비, 구매 편의성이 비교되며 기온이 점점 올라가는 가운데에서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양형모 기자

## 문체부, 170억 규모 '코로나19 극복 국민관광상품권' 발행

공공부문 격려금·포상금 등 활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함께 공공부문 '코로나19 극복 국민관광상품권'을 발행해

12일부터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판매한다.

정부는 4월 8일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으로 공공부문 격려금 및 포상금을 '코로나19 극복 국민관광상품권'으로 선구매해 조기 지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170억 원 규모인 이번 상품권은 여행사, 호텔, 테마파크 등 관광업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4월부터 상품권을 제작하고, 각 기관의 주문을 받았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발행되는 국민관광상품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